

##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도덕 교육 방안

이 세 형\*

### < 목 차 >

I. 서론	V.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II. 학생들의 다양성 요인과 실태	실천적 다양성 반영 방안
III. 학생들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점	VI. 결론
IV. 도덕 교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 참고 문헌
다양성 반영 실태와 개선 방향	* 영문 초록

### I. 서론

‘다원화’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획일화된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지양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개성을 중시한다. 다원화 사회는 그러한 삶의 양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웰빙(well-being) 열풍’은 이러한 다원화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현재의 웰빙 열풍이 비록 먹거리와 건강 관리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웰빙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 저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웰빙을 통해 다원화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사회에서 다원화가 전개되는 동안 학교 내에서도 다원화가 진행되어 왔다. 학교의 다원화는 우선 지역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학교 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

\* 서울사대부설고등학교

도시 학생과 농·어촌 학생, 그리고 강남 학생과 강북 학생으로 학생들의 특징을 나누는 사회 현상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동일한 교실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교실 내에서 학생들은 모범생과 날라리(놀이 좋아하고 공부에 무관심한 학생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과 한부모 가정의 학생, 혹은 양부모가 모두 없는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교실 내 학생들이 모두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서당 내에서도 빈부격차와 신분 격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다양성 문제가 과거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졌고, 사회 환경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해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 상황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그동안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 특히 제 7차 교육 과정은 선택 과목의 확대와 재량 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의 희망과 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려고 시도하고, 각 교과에서도 교과서를 세분화하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현실적인 운용이 그 이념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하나, 적어도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적 현실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도덕 교육에도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도덕 교과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덕목의 형성’을 추구한다. 변화된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가치·덕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덕목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치 상대주의를 지양하는 도덕 교육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잣대로 학생들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교실 내에 존재하는 학생들의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도덕과 교육의 당면 과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이를 도덕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의 다양성의 발생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도덕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 문제

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덕교육 방안을 교과 내용적 측면과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 II. 학생들의 다양성 요인과 실태

외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대단히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똑같은 머리 모양에, 똑같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책상에 앉아서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에는 학생들의 가치관, 행동 양식, 선호도,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 형태 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성은 대체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가정적 배경,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각자 다른 성장 과정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을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학생들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본다. 물론 제시된 것들이 학생들이 다양성을 모두 표현해 주지는 못 하고, 더 많은 다양성의 요인들이 존재할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논의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 가족 관계의 변화

확대가족 내 인간 관계와 핵가족 내 인간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가족 내의 사회 경험들을 통해서 사회적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수는 지난 70년 기준 4.53명에서 2002년 1.17명으로 감소하는 등 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04).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의 잠정집계 결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인원은 2.9명으로 세 식구 미만 시대가 되었다(세계일보, 05.12.28). 자녀 수 감소는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명의 자녀 양육의 형태가 오늘날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이에 따라 조부모와 부모 중심의 전통 가정에 비해서 현대의 가정은 아동 중심의 가정 구조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권리와 요구가 강조되게 되었고, 아동들은 가족의 의사 결정에 이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특히, 맞벌이 부

모들은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 하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자녀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때로는 버릇없고, 말도 듣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녀 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버릇없는 아이로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은 한 자녀인지 여부보다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더욱 관련된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04. 01.25 참고). 그러나 여러 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 한 자녀만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 태도에 다를 가능성이 있다(다만 자녀수와 부모의 양육 태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는 반면 상관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 되고 있다). 즉, 자녀 수의 감소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식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는 경향성이 있다. 최근 SBS 방송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 준다.

전통적 가정에서 청소년들은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다. 결정권은 가장에게 있으며, 가장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양보가 자녀들의 바람직한 덕목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개인 이익을 희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달라진 현대 사회의 가정 내에서는 자녀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자녀들의 권리도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까지도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 경험은 학교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학교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권리·이익을 추구하는 성향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조차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획일적인 복장 통제, 두발 통제 등을 거부하기도 한다.

## 2. 한부모 가정의 증가

2003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 30만 5천 여 쌍이 결혼을 했고, 16만 7천 여 쌍이 이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일 평균 835쌍이 혼인하였고, 458쌍이 이혼한 것으로 혼인 대비 이혼율은 54.9%에 육박한다(통계청, 2003). 이러한 높은 이혼율의 영향으로 부모 중 한 쪽만이 있는 가정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2002년 실시한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한부모 가구가 112만 4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9.4%를 차지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존재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모의 이혼과 그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형성은 학생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로 하여금 심리적 고통과 혼란을 겪게 만들고, 안전부질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정적 사건임을 강조하는 임상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일부 임상가들은 대다수의 자녀들이 일 년 정도 지나면 심리적 평안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곡선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다른 연구자들은 상당수의 아동들에게서 삶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F. Philip Rice, 정영숙·신민섭·설인자 편역, 2001, p. 15).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잘 문헌화되어 있다(F. Philip Rice, 정영숙·신민섭·설인자 편역, 2001, p. 252).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충격과 불신,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 불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이혼에 책임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한쪽 부모를 향한 분노와 적대감도 청소년의 흔한 정서적 반응이다. 또 다른 공통적인 느낌은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다. 또한 부모의 이혼에 대해 혼란스러워서 이혼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려 애쓸 것이다. 부모의 별거 후, 청소년은 자신이 애정과 도움을 받기 위해 깊이 의지해 왔던 한쪽 부모가 이제는 없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 이혼 후에는 부모와 사별한 것과는 다른 느낌의 애통과 비탄의 시기를 겪는다. 슬픔과 낙담, 우울이 공통적인 느낌이다. 만약 부모가 재혼하면, 청소년들은 계부모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생들의 부모 이혼 경험은 학교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문제에 단순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어떤 청소년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진다. 결과적으로 학교 생활에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이혼하지 않은 부모의 잦은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혼 가정 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가정에 대한 편견 없이 학생들의 다양성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혼 가정의 학생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중반부터 이혼가족 아동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사립기관, 학교 중심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이후는 학교

중심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불안감, 부정적 자아감, 죄책감 및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대인 관계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감정통제력, 문제해결력, 학업능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정문자·김은영, 2005, pp.164-165).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이혼을 문제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편견을 가짐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 부모들의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난다.

### 3. 빈부 격차의 증가

유경준(2004)은 최근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알려진 것만큼 양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가 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급등해 비슷한 시기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98년 0.494), 미국(2000년 0.36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의 비율도 96년 전체 가구의 7.65%에서 2000년 11.53%로 급등했고,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의 비율도 96년 5.92%에서 2000년 11.47%로 수직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처분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20% 이상 넘지 않는 잠재적 빈곤층도 96년 3.94%에서 2000년 4.68%에 달해 빈곤층의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빈부 격차의 증가는 지난 1997년말의 경제 위기 이래로 엄습한 대량 실업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는 실업이 상당 정도 30세 미만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음에 반해 지난 수년 간의 실업은 중·장년층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금재호·조준모, 2000). 그 결과 전체 실업자 중 미혼 실업자 보다는 기혼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45-49세의 가구주 실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실업의 양상은 그 영향이 실업자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그 가족, 특히 피부양 아동·청소년에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구인회, 2003, pp.16-17).

경제적 압박감은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전적 문제를 둘러싼 부모와 청소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청소년 자녀가 요

구하는 수준으로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없을 때 금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또한 부부 갈등을 겪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부부 관계에서 이미 갈등과 분노를 겪는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정적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행위는 재정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과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비관여적, 적대적 태도로 표출된다(구인회, 2003, p.45).

이러한 빈곤 가정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의 정서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학교 생활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힘든 가정의 학생들은 자신의 낮은 학업 성적을 부모의 경제력으로 귀인하려는 성향마저 나타내기도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한 연구(정영애·김정미, 2002)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못 하다고 보고한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하영희, 2005)도 있다. 연구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 성취도 및 가치관과의 상관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의 증대는 학교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빈곤층의 증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학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생들의 증대를 의미한다.

#### 4. 정보화 사회의 전개

최근 KBS인터넷과 주니어네이버(NHN)는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책임연구 박사 소라 교수)에 의뢰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실태’와 ‘인터넷과 세대차이’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51.5%가 인터넷을 가장 중요한 매체로 꼽았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25.2%가 휴대폰을 선택했으며, TV라고 대답한 초등학생은 23%였다. 어린이들은 심심할 때 TV시청(24.5%)보다 컴퓨터·인터넷(44.3%)을 찾았으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체도 TV(11.7%)보다 컴퓨터(24.9%), 인터넷(23.8%), 만화책(21.2%)을 먼저 꼽아 기성세대와 차별성을 드러냈다(한국일보, 2004. 06. 23).

위의 조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와 휴대폰은 학생들의 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다. 과거의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 모여 운동을 하고 교외로 나가 여가

생활을 즐겼다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와는 반대로 집 안이나 게임방에서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 잠깐의 여유 시간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학생들이 실제 생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은 대개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 실제 생활에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성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출입할 수 없다. 또 노래방과 같은 일부의 장소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출입이 허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실제 생활 공간에서의 개인의 경험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된 현대 사회의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은 매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유희거리와 다양한 지식을 제공한다. 사이버 공간은 시작은 존재하지만 끝은 존재하지 않는 미로와 같은 공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링크와 링크의 끊임없는 연결만이 존재하며, 멈추는 곳이 바로 종결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접속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고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기나긴 항해를 떠나야만 한다. 물론 끝이 없는 항해이다. 이 항해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부가적인 지식은 한편으로 그들의 교양을 살찌우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김은수, 2004, p.79).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은 학생들의 다양성 문제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은 쓰레기와 같은 유해한 정보와 유용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공간이다. 유용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 진실된 정보와 거짓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유해한 정보를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거짓된 정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어떠한 정보에 주로 접하고,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 인지발달적 관점을 가지든,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을 가지든, 혹은 정신분석론적 관점을 가지든 학생들이 경험하는 외적인 환경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Ⅲ. 학생들의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점

다원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학생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듯 하다. 학교에서는 공부 잘 하는 모범생만이 전형적인 학생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특이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문제아로 낙인찍혀 요주의 인물이 된다. ‘왜 이 학생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고, 모든 학생을 ‘모범생’이라는 틀 속에 짜 맞추어 넣기 위해 때때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기조차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지 못 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 주는 것이 ‘교실 붕괴’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사태였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며, 실제 삶에 별 도움 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수업 시간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잠을 자거나, 다른 친구들과 잡담하고, 떠들면서 시간을 때웠다. ‘교실 붕괴’ 현상의 원인이 전적으로 학생들의 다양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학교의 잘못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다원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했다는 사실이 ‘교실 붕괴’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여 주지 못 할 때, 학생들 상호 간에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나와 다른 학생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하고, 놀림의 대상으로 삼거나 괴롭히기까지 한다. 이러한 성향이 90년대 후반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 학교 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문제였다. 소위 ‘왕따’로 불렸던 집단 따돌림은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나에게 익숙한 것’을 존중받기 위해서 ‘나에게 낯설고, 타인에게 익숙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나에게 낯설고 타인에게 익숙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한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따라서 따돌려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의식을 전제한다. 그리고, ‘나의 옳음’은 집단을 통해서 확인된다. 집단 따돌림 현상을 통해 학교에서 아직도 개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어 획일적인 인간을 양성해 낸다면, 학생들은 결국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도태될 것이다.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의 ‘이태백’, 45세가 정년이라는 의미의 ‘사오정’이라는 유행어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도 빠른 속도로 ‘20대 80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는 노동가능 인구의 20%만이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창출하여 세계 경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80%의 인구는 실업자 상태로 생존경쟁을 해야만 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 사회에서 도태된 80%의 인구는 ‘티티테인먼트’ —‘tits’(미국 속어로 엄마 젖을 의미)와 ‘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적당한 먹거리와 기막힌 오락물을 의미한다—를 즐기며 무력감, 소외감등을 위로 받아야만 한다(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 2003). 현재의 학교 교육은 20%의 삶이 표준적인 삶이고, 20%에 들지 못 하는 삶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편견을 심어 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다양성의 기반 위에서 바람직한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 IV. 도덕 교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다양성 반영 실태와 개선 방향

##### 1. 현행 도덕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학생들의 다양성

2002년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을 위해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48권을 분석한 한국여성개발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교과서 내용이 ‘정상 가족’ 신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의 화목한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줘, 양부모 가정만이 ‘정상 가족’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정해숙, 김연, 2002).

이러한 비판은 도덕 교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에는 화목한 가정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 속하는 학생들이 자기 가정에 대해 ‘우리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잘 못 된 것이다. 화목한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화목하려고 못한 가정이 단순히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문제 때문에 화목하지 못 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양성 평등과 가정에 관해 높은 수준의 다양성의 관점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가정 이외의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농촌에서의 삶 보다는 도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다루고, 컴퓨터도 갖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현실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중독이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며, 빈곤층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적절한 논의의 장이 제공하지 못 했다.

현행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도덕 교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덕과에서의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가치들과,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 규범과 가치들을 내면화시켜 올바른 행동 습관을 기르는 동시에,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하였다(교육부, 2003).

이러한 목표 기술에서 도덕과는 '바람직한 삶'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직한 삶'을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전제한다. 가치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도덕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바람직한 삶의 가정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삶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도덕과에서 '삶의 다양성'을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개성(個性)'의 신장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중 1 도덕 교과서, pp. 49-57),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 존중을 위해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중 2 도덕 교과서 p. 83)는 주장을 하면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에는 '다양한 삶'이라는 제목 하에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음을 인정한다(중 3 도덕교과서, pp.9-10). 특히 삶의 다양성에 대해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중 3 도덕 교과서에서는 삶의 형태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술한다. 이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학생들의 삶의 형태는 대부분 자신의 결정보다는 부모나 주변 환경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기술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형태와 삶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삶의 모습, 형태에 대한 설명이나 기술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외적 형태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 삶의 자세나 태도를 다룰 필요가 있다. 도덕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학생들의 다양성 반영을 위한 도덕 교과 교육의 개선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도덕 교과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의미있는 것이라면, 이제 어떻게 학생들의 다양성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도덕 교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현행 도덕 교과서의 내용 체계는 생활 영역 확대의 원리에 따라, 개인 생활, 가정·이웃·학교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국가·민족 생활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년에서는 이 중 2개의 생활 영역만을 다루게 된다. 즉, 중학교 1, 3 학년 도덕에서는 개인 생활과 가정·이웃·학교 생활 영역만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도덕에서는 사회 생활 영역과 국가·민족 생활 영역만을 다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가정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 선정시 학생들을 동질 집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가지면서 모여 있는 집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직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부모가 이혼 상태에 있는 학생,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기타 이유로 화목하지 못 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덕과 교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도덕 교과의 내용은 민주적 덕목, 특히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본래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그러한 존엄성은 잠재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존엄성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 존중은 사회적 약자의 배려 문제를 등장시킨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민주적 덕목을 강조하는 데에는 민주 시민 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 시민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양성은 사회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체적인 소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간 가치의 실현에 보다 이바지할 수 있는 전체 사회의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또한 민주 시민 교육은 소외받는 학생, 교사, 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은 학교 시험 성적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불우한 가정 환경 출신의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소중한 존재로 관심을 받아야 한다. 특별히, 학습부진아, 지체부자유아, 빈곤 가정 아동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적 관심이 주어진다(한국교육개발원, 1994, pp.29-30).

도덕 교과의 내용 선정에 민주 시민 교육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덕 교과의 내용에 반영된 민주 시민 교육의 '인간 존엄성'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과 이의 실천 방안들에 대해서 자

세히 논의하고 있지 못 하다. 중 2 도덕 교과서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 기술(記述)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도덕과 교과서에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덕교과와 내용 선정시 정보 통신 윤리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행 도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은 주로 '인터넷 중독'과 '익명성'에 의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상의 쓰레기와 같은 정보에 자주 접촉하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도덕성을 형성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도덕 교과는 학생들에게 이중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 중독 수준에 이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치료적 성격의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아직 컴퓨터에 빠져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정보 통신 윤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V. 교수·학습 방법을 통한 실천적 다양성 반영 방안

학생들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업 방법으로는 역할 채택 수업과 협동 학습의 방법이 있다. 역할 채택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서로의 역할을 채택해 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협동 학습 방법은 협동을 요하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호 작용하고 협동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 상호 간의 이해와 친밀도를 증진시키게 한다. 협동학습의 방법은 공동의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방법이므로, 서로 간에 대한 이해를 간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할 채택 수업과 협동학습의 방법이 모두 학생들의 상호 이해에 효과적인 수업 모형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효과가 교사의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업 모형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성 문제의 관점에서 서 있는 도덕과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 수업 모형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 방법에서 학생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를 하나의 수업 방법적 접근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1. 교사의 학생 다양성 인정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교사는 자신의 행동과 말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의 신문 기사를 보자.

서울 한 초등학교 1학년인 崔모(8)양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얼마 전 학교에서 난감한 숙제를 내줬다. '가족사랑' 과정의 '아빠 발 그려오기'였다. "아빠 발을 본 적이 없는데 숙제를 어떻게 해요. 집에 와 엄마에게 아빠 발을 그려달라고 계속 졸라댔더니 엄마가 저를 부둥켜안고 우셨어요. 참으려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났어요." (중앙일보, 2003. 04. 10)

위와 같은 실수는 교사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다. 같은 교실 내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섞여 있다.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특히 도덕과 교사는 학생들의 개개인적 특성을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 도덕과 교사는 다른 과목 교사들에 비해 담당 과목의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강한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고, 더욱 많은 역할 기대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문제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러한 것은 도덕적이지 못 하다'라는 도덕과 교사의 말은 학생들의 도덕적 인식에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도덕과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의 가정 환경, 성장 배경, 개인적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이 같은 교실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언제나 소수의 학생들을 배려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이 도덕과 교사가 모든 학생에게 아무런 상처나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에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부재 가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과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부재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사회 병리 현상이 아님을 말하면서 '부모와 같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과제식의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덕과 교사는 교사 자신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2. 역할 채택(role-taking) 수업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접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흔히 역할 채택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 보는 것’ 등과 같이 은유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학문적 입장에서 역할 채택은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계획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역할 채택은 종종 그 자신의 입장에만 파묻혀 있는 자기 중심주의(egocentrism)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추병완, 1999, p.352).

또 역할 채택은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되는 주요 인지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관점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활동을 말한다. 즉,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홍순정, 1997, pp.46-47).

역할 채택의 과정을 통해 개인은 타자의 규범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구성적 활동을 통해 인지 구조 속으로 통합시킨다.

역할 채택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법으로는 도덕적 판단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원칙 검사 방법 가운데 역할 교환 검사와 심층 발문 전략의 일환인 역할 채택 기법을 들 수 있다(추병완, 1999, p.379). 역할 교환 검사는 판단되어지는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가장 반대편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의 안목에서 보았을 때, 사용된 원칙이 수용 가능한 판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학생들의 입장 채택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역할 채택 발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인지적 경험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고 있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 지의 상황에서 같은 급우의 입장, 선생님의 입장, 부모님의 입장, 부정 행위를 한 친구의 입장 등의 여러 입장에서 사고하도록 심층적인 질문을 계속함으로써 학생들의 역할 채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할 채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지도 전략으로는 역할놀이(role-playing)를 들 수 있다(추병완, 1999, p. 378). 역할놀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참가자 혹은 관찰자가 되어 타인의 입장을 채택하는 실제적인 행동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할놀이 수업의 일반적인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적용 절차

<p>단계 1 : 집단을 열중하게 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를 규명하거나 안내하기</li> <li>· 문제를 명백히 하기</li> <li>· 문제 이야기를 해석하고 문제점 탐색하기</li> <li>· 역할놀이를 설명하기</li> </ul>	<p>단계 2 : 참여자 선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들을 분석하기</li> <li>· 역할 연기자 선정하기</li> </ul>
<p>단계 3 : 무대 설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라인 설정하기</li> <li>· 역할들을 다시 설명해 주기</li> <li>· 문제 상황의 속사정 파악하기</li> </ul>	<p>단계 4 : 관찰자들을 준비시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li> <li>· 관찰과제를 분담시키기</li> </ul>
<p>단계 5 : 실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놀이 시작하기</li> <li>· 역할놀이 유지하기</li> <li>· 역할놀이 중지시키기</li> </ul>	<p>단계 6 : 토의 및 평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놀이 행동을 검토하기(사건, 입장, 현실성 등)</li> <li>· 중요한 초점에 대한 토의하기</li> <li>· 다음 실연 개발하기</li> </ul>
<p>단계 7 : 재실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된 역할놀이 하기 : 다음 단계 또는 행동 대안을 제안하기</li> </ul>	<p>단계 8 : 토의 및 평가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 6과 같음</li> </ul>
<p>단계 9 : 경험 내용 교환 및 일반화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상황을 실제 경험과 현존 문제에 관련시키기</li> <li>· 행동의 일반 원칙 탐색하기</li> </ul>	

자료 : Bruce Joyce & Marsha Weil(1993, p.333)에서 인용

역할 채택 능력이 위에서 언급한 방식을 통해서만 고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도덕·가치 교육의 교수 모형들이 그 세부 절차로서 역할 채택 활동을 부분적으로 원용한다(추병완, 1999, p.380). 교사의 수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역할 채택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할 채택 수업은 나와 상대방의 관점과 상황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기대한다. 다원화 사회에서 나와 다른 상황과 관점,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 3.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 방법이다(변영계·김광휘, 1999, pp. 19-20). 협동학습은 학습 구조면에서 개별 학습이나 경쟁 학습과 구분될 수 있다. 경쟁 학습 구조에서는 한명 또는 소수의 학생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위하여 학생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공부하게 된다. 이 학습 구조에서는 타인의 실패가 곧 나의 성공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기에게는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는 해가 되는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개별 학습 구조는 다른 학생과는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속도로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 목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학업 성취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협동학습 구조에서 학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부여받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라는 태도를 갖게 되고, 집단 구성원들은 성공적 학습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게 된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긍정적 상호 작용을 하며, 아이디어와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맡으려고 하고, 집단에 기여하고, 과제를 분담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적절하게 이용하게 된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대인관계적 성과에도 널리 효과를 가진 학습 기법이다. Slavin(1995, pp.49-69)에 의하면 협동학습은 학업 성취 외에도 집단 내부 관계의 개선, 학습 지진아들의 수용, 자아 존중감, 공부를 좋아하는 또래 규범의 형성, 행동의 통제, 과제를 잘 해 오고, 지각하지 않는 것, 학급과 학교를 좋아하는 것, 급우들을 좋아하고, 급우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것, 협동, 이타주의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보다도 협동학습은 집단 내부 관계의 개선에 효과적이다. 협동학습 집단 구성의 기본 원칙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학생들로 하나의 협동학습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협동학습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피상적이지 않은 협동적인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 이 방법에서는 집단 보상과 집단 과제, 그리고 교사에 의해 학생들 사이의 협동이 강조된다. 협동학습은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 사이에서 강한 상호 간의 접촉 기회를 매일 제시한다. 교사가 다양한 문화적 집단들을 함께 학습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확실한 문화 간의 상호 작용이 공식적으로 시인되었다는 생각에 명백히 서로 교류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은 협동학습이 실제로 집단 내의 관계에 대해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협동학습은 학습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지니고 있는 학습 부진아나 미진아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 및 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그들의 수업 참가 비율 및 과제 이행, 그리고 학습 태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일반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 부진아나 미진아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나 배척 행위를 감소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진정한 학습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협동학습은 서로 간의 상호 작용을 조장하여 서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협동학습 수업 방법과 모형들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협동학습 모형들이 모두 효과적인 것인 아니었고, 적용될 수 있는 상황들도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각 협동학습 모형들은 각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고, 특정 효과를 더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그 나름의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교육가들에게 널리 채택되고, 신중한 연구들을 자극해 온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는 협동 학습 방법에는 함께 학습하기(Learning Together), 학생 팀 성취 부문(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 팀별 대항 방식(Teams-Games-Tournament), 지그소우(Jigsaw), 그리고 집단 조사 활동(Group Investigation) 등이 있다(George P. Knight & Elaine Morton Bohlmeyer, 1990 : 추병완, 1999).

그러나 협동학습을 이용한 도덕과 수업을 설계하면서 기존의 협동학습 수업모형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 사실 전형적인 협동학습의 방법들이라는 것들이 도덕과 교육이나 도덕 교육을 전제로 만들어 진 것도 아니다. 협동학습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협동학습 수업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협동학습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 대면적이고 촉진적인 상호 작용, 개인의 책임성과 집단의 책임성, 소집단 내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 그리고 집단화 과정이다(David W. Johnson, Roger T. Johnson & Edythe Johnson Holubec, 1992).

긍정적인 상호 의존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성공하지 않으면 개인도 성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지각할 때 성공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이것은 집단의 성공에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요구되고, 각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은 자신의 자료, 역할, 과제 책임 때문에 공동 노력에 독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학생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돕고, 원조하고, 격려하고, 성공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칭찬하기 위해 대면적이고 촉진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목표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서로의 학습을 대면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기본 요소는 개인 책임성과 집단 책임성이다. 협동학습에서 집단은 집단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집단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번째 기본요소로 소집단 내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협동 작업을 위한 사회적 기술들은 협동학습이 채용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신 리더쉽, 결정을 내리는 것, 신뢰구축, 의사소통, 갈등을 다루는 것과 같은 사회적 기술들은 학생들에게 의도적이고 세밀하게 교육되어야 한다.

마지막 요소는 집단화 과정이다. 집단은 어떠한 구성원 행동들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기술하고, 어떤 행동들이 계속되어야 하고,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학습 과정의 개선은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학습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어떻게 집단 효과성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야기된다.

이러한 다섯 가지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교사는 수업 환경에 맞는 적절한 협동학습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다원화 사회에서 학생들의 대인 관계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낯선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낯선 것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낯선 것에 다가 가서 이를 접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협동 학습은 가정 환경, 경제적 수준, 학습 능력에 있어 동질적인 학생들보다는 이질적인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한다. 협동학습의 방법들은 소집단 내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들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들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학습을 통해 나와 다른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수업 구조 외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 VI. 결 론

현재 한국의 학교 교육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정규 수업에, 보충 수업을 받고,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고, 각종 교육 정책들은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겠다고 부르짖어도, 학생들

은 그다지 창의적이지 못 한 듯 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우리 학생들의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획일적인 교육 아래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은 무시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또 겪고 있는 중이다. 변화는 적응을 요구한다. 교육도 사회 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학생들도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로 가정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학교에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기초하는 미국 정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원화 사회의 전개와 함께 학교 학생들의 다원화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표면화되고 있다. 학교가 다원화된 학생들의 다양화된 욕구에 맞추어 변화하지 못 하면, 학교 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비판받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의 학교를 적지 않게 뒤흔들고 있다.

학교 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도덕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 한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이 학습자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학생들은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물론 전통 사회에서나 산업화 시대에서도 학생들은 완전히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학생들의 다양성은 전통 사회나 산업화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의 발생 원인은 가족 관계의 변화, 빈부 격차의 확대, 다원화 사회의 영향, 정보화의 전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도덕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도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 한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문화 체험 속에서 적지 않은 도덕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도덕과 교육의 과제이다. 또 변화하는 사회에서도 결코 변화할 수 없는 바람직한 가치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제시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의 모습이 변화했다고 해서 인간이 중시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들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 타인 존중, 생명에 대한 외경, 관용 등과 같은 가치들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도덕 교육을 계획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 할 때, 집단따돌림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집단따돌림과 같은 문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다양성을 지니게 되는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도덕과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 수업 방식으로 역할 채택 수업과 협동

학습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현재의 도덕 교육이 학생들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도덕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도덕성의 형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성혜·한유진(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 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 연구 제 20호, 교육인적자원부(2003), 『중학교 도덕 3 교과서』.
- 구인회(2003), 『경제 위기와 청소년 발달』,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138집
- 금재호·조준모(2000), 『실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수(2004),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청소년의 도덕적 자아 형성을 위한 도덕교육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선(1999), “실직 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아동복지학, 8: 35-58.
- 변영계·김광휘(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학지사.
- 유경준 외(2004),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01.
- 전숙영(1996),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정문자·김은영(2005), “이혼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모형 개발”, 대한가정학회, 대한가정학회지, pp.161-183.
- 정영애·김정미(200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 창원대학교 인문논총, 9, pp.113-136.
- 정해숙·김연(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2 연구보고서 220-11.
- 최두진·김지희, “정보격차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산적 정보 활용 방안”, 월간정보격차 이슈리포트 Vol. 1, No. 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추병완(1999),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 백의.
- 통계청(2003), 2003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 통계청(2004), 2004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영희, “부모와 형제에 대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pp.43-57.
- 한국교육개발원(1994), 『민주 시민 교육』,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 공저, 강수돌 역(2003), 「세계화의 덫」, 서울 : 영림카디널.
- 홍순정(1997), 「어린이의 사회 도덕성 발달」, 서울 : 창지사.

- Joyce, Bruce & Weil, Marsha, 윤기목·송용익·김재복 역(1993), 『수업모형』, 서울: 형설출판사.
- Johnson, D. W., Johnson, R. T. & Johnson, E. H.(1992), Advanced Cooperative Learning, Eina, MN : Interaction Book Company.
- Rice, F. P., 정영숙·신민섭·설인자 편역(2001),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 Knight, George P. & Bohlmeyer, E. M.(1990), "Cooperative Learning and Achievement: Methods for Assesing Causal Mechanism" In Sholomo(Ed.), Cooperative Learning: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Praeger.
- Slavin, Rovert E.(1995), "Cooperative Learning and Outcomes Other Than Achievement", In Rovert E. Slavin(Ed.), Cooperative Learning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Massachusetts: A Simon & Schuster Company.

<Abstract>

A study on moral education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students

Se-hyung, Le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plural society. So there are various types of students in schools. This diversity of students is generally caused by the change of family-relationship from large families to nuclear famili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ne parent families, the noticeable distinc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society. If schools failed to manage the diversity of students, the problems like "classroom collapse", harrassing others collectively, and failing to adapt oneself to a plural society would be generated. So a school education, especially a moral education should consider the diversity of students. To do this task, the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should organize the contents related with diversity of students and society. The present curriculum of moral education doesn't consider the diversity of students enough. And a moral teacher should consider the diversity of students and teach students to approve others's position through role-taking and cooperating learning. Role-taking teaching is very useful for understanding others' perspectives. Cooperating learning increases the interaction among students. Role-taking teaching and Cooperating learning would helpful to decrease the conflict among students.

Key words : plural society, the diversity of students, role-taking, cooperative learning

---

\* SNU High School